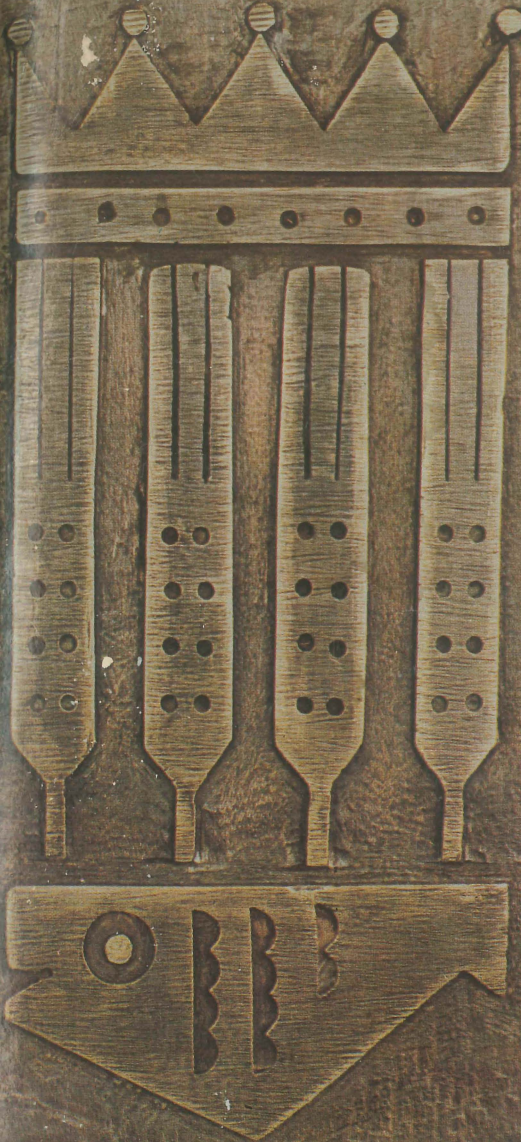




칠층산

토마스머튼 지음
정진석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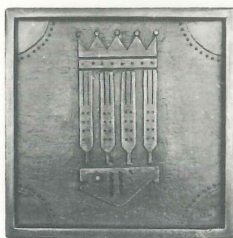
HANG

76

칠층산

토마스머튼 지음
정진석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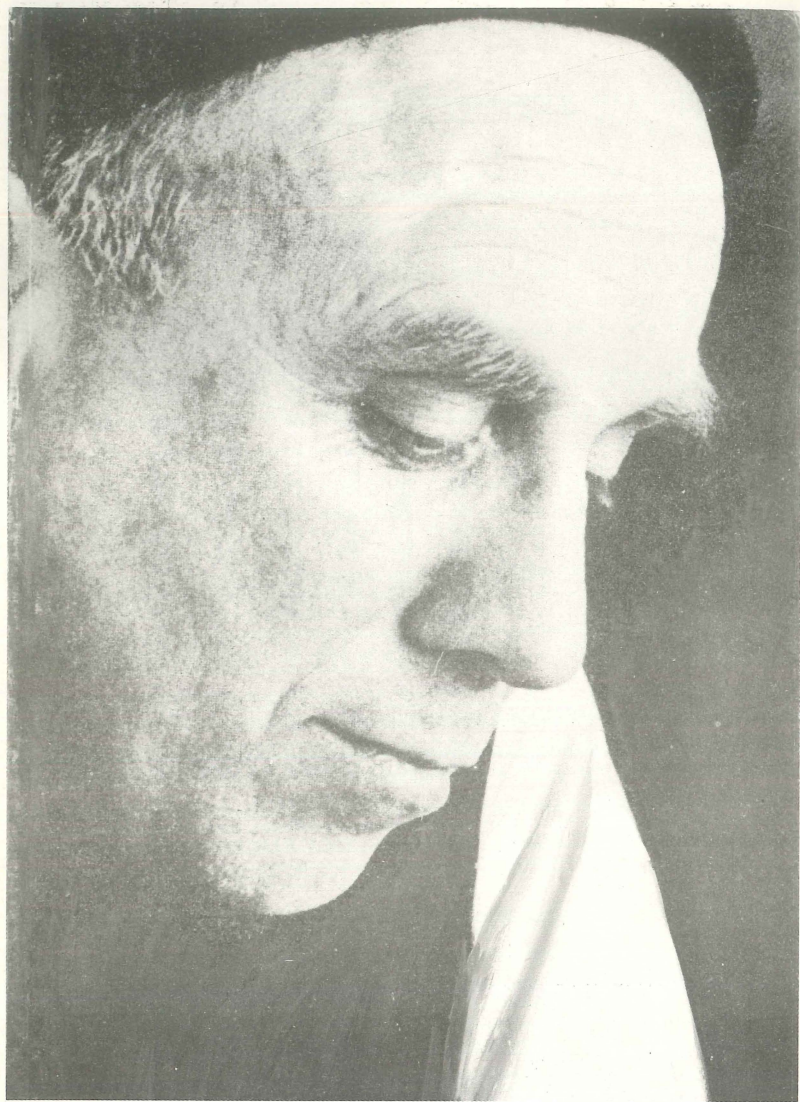
규격 28×28 그리스도
강찬균작

제 4 회
가톨릭미술전출품작

성
바
오
로
출
판
사

칠 층 산

토
마
스
머
톤
정
진
석
지
음
윝
김



著者 토마스 머튼

차례

책머리에..... 五

제 1 부

一、 보물섬 찾기 놀이..... 一

二、 박물관의 성모님..... 六

三、 지우의 씨레질..... 七

四、 장터의 어린이들..... 一五

제 2 부

一、 큰 값을 치르고..... 一七

二、 모순의 바다..... 二五

제 3 부

一、 자기(磁氣) 북극 三六

二、 북 극 三六

三、 잠자는 화산 三六

四、 감미로운 자유의 맛 三六

후 기

고독 속의 가난한 자의 묵상 三七

譯者 紹介

가톨릭 신학대학 졸업・司祭敎品
로마 울바노 대학원(敎會法 碩士)
가톨릭교 淸州 敎區長 主教(現在)

著 書

敎階 制度史
敎會法源史
수필집 : 목동의 노래
방송 원고집 : 라디오의 소리
라디오의 메아리

譯 書

億萬人的 信仰
영혼의 평화
질그릇
시련된 사람
나는 믿는다 왜?
성녀 마리아 고레띠
其他 講論集 등

칠 증산

1976 년	6 월	29 일	교회인가
1976 년	6 월	30 일	초 판
1986 년	5 월	3 일	중 판

판 권 소 유	지은이	토 마 스 머 톤
	옮긴이	정 진 석
	펴낸이	도 금 회

펴낸데 : 성바오로 출판사

서울 도봉구 미아동 103-6

<등록·제 6-4 호 1964. 10. 15>

전화 (989) 4954

대체 010017-31-0517201

No. 243

값 3,500 원

취급처 : 중앙보급소

132·서울 도봉구 미아동 103

(989) 5004 (988) 8824

대체 012237-31-0525642

성바오로 서원

명 동 (776) 2941 대체 010017-31-1078195

천호동 (483) 5165 논현동 (548) 3623

대 구 (45) 5185 부 산 (44) 7680

인 천 (72) 7830 천 주 (3) 3398

대 전 (254) 3089

친국의 형식

A. J. 크로닌 / 李承雨 옮김

사라하된 소녀를 사별코 성직에 뛰어드는 주인공 지성. 아직 문명
에 어두운 중국의 한 벽촌으로 부인되어 무지와 질병과 홍수, 미
적들과 싸우면서 30여년의 긴 세월을 바친다. 「멜번」의 「대지」와
는 또 다른 중국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대작 안에서 이상적인 인간
상을 발견케 된다.

인생의 도산에서

A. J. 크로닌 / 李鍾桓 옮김

누구에게나 삶은 단 한번만의 사건이다. 이 단 한번의 삶을 의
학 박사로서 또 대작가로서 부활한 인간애와 인도주의로 일관한
크로닌 박사.
결코 평탄한 길은 아니었다. 강철같은 의지와 전지한 삶의 자세
로 역경을 뚫고 가는 인생도정은 누구에게나 감명을 준다.

영채(城寨)

A. J. 크로닌 / 具勝英 옮김

크로닌의 제 3집. 철저한 휴머니스트인 그는 탄광지대와 런던의
상류층까지 불의가 묵인되고 있는 모순된 사회와 정면으로 대결해
서 승리한다. 청춘의 희비와 정열이 숨가쁘게 융박하는 감동적인
소설.

영인인 지옥에 가다

G. 셰즈볼 / 남국 연 옮김

물결의 풍요를 만끽하는 듯한 서구사회 저변에 깔린 이 비극적
상황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내부에서부터 병들어가고 있는 현대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주인공 베아트 신부는 자신도 가난한 광부
가정의 출신으로서 이 모든 비애를 자신의 문제로 삼고 노동자 사
회로 뛰어든다. 가장 불행하게 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기 위해 이듬없는 광부가 되어 석탄민지를 일으키는 지옥(탄광)
속으로 들어간다.

고독과 순결의 노래

A. J. 크로닌 / 李鍾桓 옮김

크로닌의 소년시절을 그린 자서전식 소설이다. 부모를 잃고 파
리의 반감지 않은 아이로 외가집에 받아들여진 로버트는 행복과는 거
리가 멀다. 그러나 성인세계의 위선과 모순의 강을 거칠 나으면
서 소년 알리산과의 꿈결같은 사랑, 할아버지와 의 기이한 우정을
반편으로 무수한 역경을 넘어서며, 학구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느
는 가슴성을 발견케 된다.

별이 내려다 본다 I, II

A. J. 크로닌 / 이 정기 옮김

탄광지대의 현실을 생생히 파헤친 크로닌의 역작. 땅굴 속에 매몰된 광부들... 이를 외면하는 냉혹한 탄광주와 비정한 사회상! 부와 명예로만 치달고 있는 흥미와 박진감이 넘치는 사회소설.

러시아에서 그분과 함께

윌터 J. 취제크 / 최 진영 옮김

예수회 사제인 저자가 철의 장막 뒤에서 남모르게 겪은 23년간의 감명깊은 체험담을 그리고 있다.

스파이 혐의로 비밀경찰에 체포되어 시베리아 광산과 강제 수용소에서의 온갖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신앙의 민중과 함께 사제로서의 삶을 생생히 살아 온 취제크 신부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처음과 마지막에 쓰는 이름

홍 윤숙 지음

사라져 가는 삶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을, 흘러가는 것들 속에서 남아야 할 것을 만들어 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며 역사이다. 영원이라는 이름의 집으로 가는 통행증을, 그 집에서의 안주를 약속받는 승락서를, 처음과 마지막에 쓰는 이름 하나를 찾기 위해 길고 긴 지상의 순례를 허쳐거리며 해왔음을 고백하는 수필집.

철층산

토마스 머튼 / 정 진석 옮김

미국 굴지의 저작가이며 “첸터키” “게쎄마니”의 트라피스트회 수사신부 토마스 머튼의 자서전. 끊임없는 추구의 방향과 좌절 속에서 자기 계변을 극복해 가는 도정은 신앙의 유무를 막론하고 농도 짙은 인생체험을 실감있게 안겨준다.

왕국의 비밀

M. 윌터리 / 성 찬성 옮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던 날부터 승천을 거쳐 성신강림에 이르는 50일 동안의 일들을 엮은 소설이다.

계변과 회의의 철학도 마르푸스가 그리스도와 만나게 되는 멀고도 험한 여정을 편지형식으로 펼쳐 가는 감명깊은 복음 소설.

산 바람 하느님 그리고 나

김 정훈 · 유교집

사제서품을 불과 몇 달 앞둔 김 정훈 부제는 오지리 인스부룩 어느 산에서 불의의 조난으로 돌아오지 않는 몸이 되었다.

자신에게 얽혀 들어오는 문제들과 고뇌들을 그리스도를 직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면서 쓴 솔직한 그의 자취인 사탕의 일기.

지하수

林 玉仁 지음

후대들에게 무슨 얘기를 들려줄까? 그러나 나의 인생이 그러하듯이 대단하고 찬란한 무엇은 없었다. 있다면 주변의 모든 것에 공감하는 순박한 눈이라고나 할까...

왜 불행할까, 왜 무의미하게 느껴질까, 생활은 사랑하는 이의 것이다. 하나하나 티없는 눈길로 바라보면 우주와 인생은 사랑으로 짝 차있다고...〈본문 중에서〉 생활에서 우리나라는 생생한 필치로 색다른 감동을 안겨주는 중견작가의 생활기록서, 인생의 교훈서다!

無常을 넘어서

金 洪燮 지음

누구에게나 삶은 단 한번만의 사건이다. 이 단 한번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 이상으로 더 크고 더 귀한 일이 있을까. 인생과 직무, 신앙, 모두에 충신했던 김 홍섭 판사의 자연과 인생을 예찬하며, 관조한 수필과 시, 일기첩을 모은 감동적인 명저.

아름다운 새벽

馬 海松 지음

우리나라 창작동화의 개척자이며 수필문학으로도 대성을 이룬故 마 해송 선생의 간추린 유고집. 재리와 명성에 초연한 중에서도 진리 앞에서는 겸손하시던 선생의 맑고 곧으면서도 훈훈한 인품의 향취가 일생 연마하고 추구해야 할 인격도야의 진면을 보여준다.

행복이라는 이름의 불행

會野綾子/李 石奉 옮김

아름답고 충명한 레이코가 자기와 공통된 가치관을 가진 성실하며 인간성이 풍부한 결혼 상대자를 찾아나서는 동안에 성숙해 가는 내적 심리를 섬세하고 예리하게 그리고 있는 품위높은 인생소설.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성실한 인간을 찾는 레이코에게서 결혼의 중대한 의의를 재고케 한다.

침묵

遠藤周作/金 潤成 옮김

삶과 죽음, 순교와 배교의 갈림길에서 번뇌하는 주인공의 신앙의 자세와 유한한 인간성을 적나라하게 파헤쳐 감동을 일으킨 장편소설.

신앙과 휴머니즘은 배치되는 것일까. 하느님의 침묵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작가의 눈은 인간을 통해서 하느님을 바라보며 인간 누구나가 공감하면서 또 저마다의 다른 준렬한 비관을 가하지 않을 수 없는 주인공을 부각시키고 있다.

하느님께 양갓음한 사나이

M. 레이몬드 / 이 진숙

국판 230면

미국 게쎄마니 트라피스트 수도회가 낳은 복자 요아킴 수사의 전기.

불같은 성질의 카우보이가 강한 집념 끝에 관대하고 온순한 성인으로 변화되기까지의 도정은 우리도 성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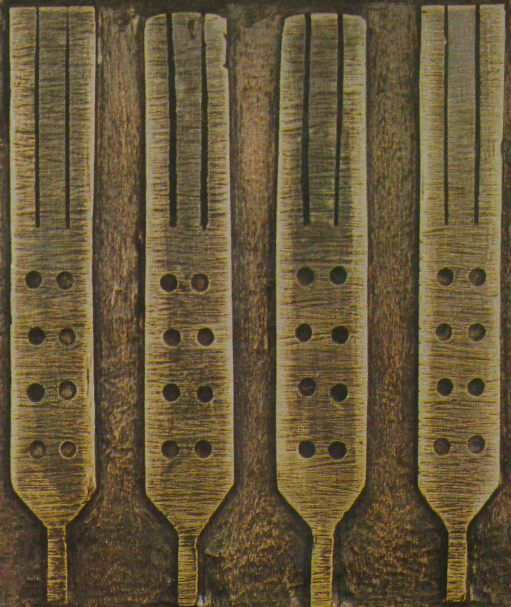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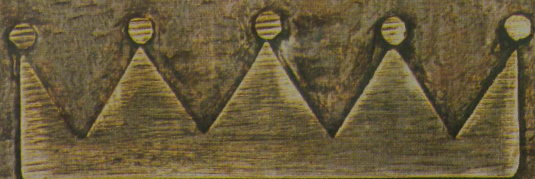
너는 내 아들

J. 로이 레제르 / 김 정

4·6판 317면

사생아로 태어나 가난과 고통 속에서 좌절한 채 방황하던 레제르.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절망 속에서 병고에 시달리던 레제르를 하느님은 아들로 품어주시고 끊임없는 계시로써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다.

깨끗한 마음으로 정성스레 쓴 이 고백은 단순한 믿음을 갖게 해주며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이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뜨겁게 전해준다.



성바오로출판사

KANG
76



성바오로 출판사